

1. 대상자의 70.6%가 제조업에 배치되어 있고 보건관리자는 거의 축적이었으며 건강관리보건담당자는 많은 수가 전담을 하고 있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25~29세가 38.2%, 전문대졸이 67.6%로 많았으며 미혼이 58.8%, 산업장 현직경력은 1~5년 미만이 38.2%로 가장 많았다.

2. 대상자가 근무하게 된 동기는 52.9%가 근무조건이 좋아서 한다였고 보수교육은 79.4%가 받아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무실이 단독으로 있는 곳이 87.5%로 나타났다. 월평균 보수는 평균 43만8천원이었고 기업주는 대체로 산업간호에 긍정적이었다.

3. 업무내용별 실시율은 전체적으로 산업보건 및 산업간호사업운영에 있어서 기구, 물품선정의 확보가 96.9%, 간호제공 업무중에서는 응급처치와 투약이 전원 실시하고 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서는 보호구 점검이 56.3%, 복지후생에서는 타직원과의 협력이 68.8%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4. 업무실시정도는 간호제공업무가 평점 0.7로 가장 많이 실시되었고 다음이 산업간호운영업무 0.59, 복지후생업무 0.45, 환경관리업무 0.43순이었으며, 업무실시정도와 유의하게 나타났던 것은 결혼여부($p < 0.01$), 경영주의 산업간호에 대한 태도 정도($p < 0.05$)였다. 간호제공업무중에는 건강문제 호소자에 대한 사정이 평점 0.79로 가장 많이 실시되었고 그 다음이 응급처치 0.71이었다.

근로자에게 간호제공업무는 결혼여부($p < 0.05$)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었다.

5. 재해건수율은 업종별로는 전기업이 15.1로 가장 많았고 규모별로는 300~499명 규모가 13.8로 가장 높았다.

6. 근로자 1인당 월별 의무실 이용건수 및 이용율은 대체로 10월과 12월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문제별로는 소화불량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 산업간호사의 배치현황 및 간호업무 제공 실태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창간호. 1989. 2

정 연 강·이 광 옥·김순례

1986년 8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달간 서울시의 산업체 의무실에 근무하는 면허 소지등록 간호사의 배치 현황과 그들의 근무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체 전담 간호사 91명을 대상으로 이들을 직접방문 면담하여 연구한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조사대상자는 83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91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시 전체근로자에 대한 간호사 일인당 담당 근로자수는 13,990명 이었으며, 간호사

가 있는 사업체 근로자 수에 대한 간호사 일인당 실제 담당 근로자수는 1,645명이었다.

2) 서울시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간호사 배치율은 13.2%에 불과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300~999인 규모업체에 39.5%, 1,000~1,999인과 2,000인 이상 업체에 45.0%로 분포하고 있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50.5%, 운수창고업, 서어비스업에 12.1%, 금융업에 20.9%로 분포하고 있었다.

3) 조사대상자들의 연령별 분포는 25~29세군 49.4%, 20~24세군 22.0%로 20대군이 71.4%를 차지하였다.

교육정도는 65.9%가 간호전문대학 출신이었고 31.9%는 간호대학 졸업수준이었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63.7%, 기혼이 36.3%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경력은 1년이상 5년미만 51.6%, 5년이상 10년 미만이 27.5%였으며 산업장의무실 경력은 1년 이상 5년 미만이 57.1%, 1년 미만이 27.5%로 나타났다.

4) 조사대상 업체의 1985년 연간 재해 건수율은 82.8%이었으며 300~999인 업체가 196.8, 1,000인 이상업체 33.2, 100~299인 업체 2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서어비스업이 1,237.3으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업 1,037.2, 도·소매업 166.7의 순이었다.

5) 조사대상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체의 근무여건을 살펴보면 98.8%가 의무실을 가지고 있었으며 74.7%는 독립된 의무실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전체의 80.7%는 지정병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중 39.8%는 종합병원을, 20.4%는 병원을, 16.4%는 의원을 지정병원으로 하고 있었다. 19.3%는 지정병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84.3%는 1부제 근무를 하였고 10.8%는 2부제 근무를 하고 있었다.

산업 간호사들은 산업체내에서 총무과에 37.4%, 인사과에 26.5%, 기타과에 19.3%가 소속되어 있었다.

산업간호사가 있는 사업체의 주요 보건 문제는 보건 교육의 문제가 29.0%나 지적되고 있었고 안전 관리 문제와 작업 환경관리의 문제가 각각 18.4%로 나타났다.

근로자 한사람에 대한 연간 의무실 예산은 52개 응답업체 중 5,000원 이상이 36.6%였으며, 1,000~2,000원 25%, 4,000~5,000원 13.5%수준 이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이 23,085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어비스업 5,025원, 건설업, 5,000원, 제조업 4,198원 순으로 나타났다.

6) 조사대상자들의 월평균 보수는 상여금, 수당을 포함하여 389,659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 20만원부터 최고 65만원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한편 40~45만원군과 50만원 이상군이 각각 18.2%, 30~35만원군 15.9%, 25~30만원군과 35~40만원군, 45

~50만원군이 같은 13.6%를 차지하고 있었다.

7) 조사대상자들의 직업만족도는 전체의 40.7%가 만족하고 있었으며 53.8%는 보통정도였다.

산업간호에 대한 흥미도 50.5%가 흥미있다고 하였으며 48.4%는 보통정도로 나타났다.

8) 산업간호사의 업무수행 실시 정도는 근로자에게 간호제공 기능이 가장 높은 수행률을 보였으며 다음이 산업보건 및 산업간호 사업운영 환경위생 및 안전관리 기능, 산업근로자의 복지후생기능 순으로 나타났다.